

◇ “달라져야 한다”

숨가쁘도록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속에 우리협회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냉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지난 '95 정기총회와 속개회의 및 제1회 임시총회,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의 문제점을 현실적인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 협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For the Development of KIRA

류재경 / 우성프로젝트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ung

기존 사무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경영기법과 현상타파기법의 새로운 경향에 거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체는 필요시마다 품질관리, 자료관리,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법론을 재교육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래형 건축사는 전문화를 통한 수주형태의 구조 조정, 생산및 재무관리의 건전한 조직육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합리화를 이룰것이다.

제30회 정기총회는 95년 10월 24일 10시에 소집되었고, 개회는 27분 늦게 시작되었다. 총 대의원 491명 중 257명 참석으로 무려 234명 (47.6%) 불참을 기록하며, 굉장히 지루한 회의로 마지막 안건인 제7호의안을 남겨 두고 17시 35분에 회의는 끝났다.

이로써 감사의 지적과 같이 약 2,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낭비하는 가운데 95년 11월 3일 14시에 속개 회의가 소집되어, 제 시간에 당도한 대의원 제적수 미달로 2시간 8분이 지난 후에야 어렵게 속개회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참석 대의원 수는 246명, 또 245명(49.8%)이 불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갑론을박의 분명치 않은 토론(?)끝에 회장단에 일임 한다는 내용으로 어렵게 속개한 지 1시간 2분 만에 폐회하였다.

96년도 제1회 임시총회는 3월 28일 10시에 소집되었으며, 개회는 24분 늦게 총 대의원 566명중 287명 참석으로 변함 없이 279명 (49.2%) 불참을 기록하였다.

더더욱 문제점은 지루한 회의시간이 흘러 갈수록 당초 매워졌던 자리는 뚜렷하게 비워져 가다가 중식 후에는 회의진행이 어려워 보이더니, 마지막 의안 검토시에는 “참석자 수를 점검한 후에 회의 진행하라”는 웃지 못할 발언을 들어야 하는 의장의 고충도 우리는 이해심을 보여야 할 부분이다.

이상의 중요한 2가지 협회 총회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의 회의 모습 이라기 보다는 회의 진행법에 익숙하지 못한 단순 친목회의나 월례회 같아, 옛말의 ‘상류를 다스려야 편안 해진다.’는 현상 타파의 아이디어를 우리 협회가 반드시 찾아 내어야할 문제점이다.

또한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이 4월 22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각 시,도 지역별 장소에서 2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개월전에 통지된 협회의 교육과목 편성 및 시간표에서 우리는 또다시 지루한 일정에 몸서리쳤다. 왜 우리는 다른 유사단체보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지친 스스로를 더욱 모질게 하는 것인가 하는 다수의 푸념섞인 교육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나 하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 “넓어져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토록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사 관리업무의 건축사협회 위탁과, 건축사시험관리, 건축사보 및 외국 건축사면허 취득자 신고 수리 및 건축사 연수교육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연7일이내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96년 제1회 임시총회 감사의 종합평가 개선사항중 회의중간에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에 대한 중식비 회수 문제와 기존 협회 회관 대회의실 좌석수가 465석으로 정관의 회원 10인에 대의원 1인 선출 규정에 따른 장소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문제, 건설기술자 신고(기술인 협회)에 관한 건교부 행정지침(96. 4. 6)의 법제화 문제, 공사감리와 설계감리의 분명한 분리기준안 마련, 각종 계약시의 중·소규모의 사무소까지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의 제정 등 시급한 현안이 누적되어 있다.

우리 모두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각 회원마다 대안을 모색하여 무제한 제시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협회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굴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 ◇ “앞서가야 한다”

“연수(研修)”란 말의 뜻은 “학업을 연구하고 닦음”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곧 전문적인 지식은 지속적인 수확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우리의 교육열과 지식교육의 우수성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졌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은 말한 것도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의 개발과 함께 성실성과 도덕성, 안정된 정서를 갖춘 우수한 건축사들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열린 교육체계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지적인 영역처럼 변화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

록 개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선진국에서 많이 실험, 실시되고 있는 것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 방법과 같은 관계법령의 건설교통부 건축과 담당자의 적법성 해설, 협회 운영위원회의 단순자료 제공 등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형식에서 탈피하여 과감히 선도적인 새로운 기법을 채택해야 하겠다.

7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제주)으로 나누어 협회사무처와 교육위원회가 순회 전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진행에 교육부 지원일련기관의 협조하에 전문가 집단인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에 관련한 법령을 현실성있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식(목표관리 Workshop) 연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제안한다”

기존 사무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경영기법과 현상타파기법의 새로운 경향에 거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체는 필요시기마다 품질관리, 자료관리,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법론을 재교육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래형 건축사는 전문화를 통한 수주형태의 구조 조정, 생산 및 재무관리의 건전한 조직육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합리화를 이룰것이다.

본인은 산업재활부문에서 많이 채택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 품질관리기법의 하나인 분임토의식 “목표관리 Workshop”을 도입하여 건축사에 알맞은 총회 및 연수교육의 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목표관리 Workshop”은 먼저 지정 연수원에 입소, 각 지역별 회원을 혼성으로 한 수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진행순서에 따라 팀별 달성가능한 목표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대·소회의실이나 야외의 장소에서 자유토론기법에 따른 현상파악 - 문제점 도출-공감된 문제점 분류 및 통합-문제점 우선순위 결정 - 요인분석 - 대책수립 - 대체안 선정 및 결정 - 회의록 제출 등의 일정을 수행시킨다.

지역통합과 노·소장과의 혼성팀으로 단합의 자리를 갖는다면 이제까지의 억지추향과 같은 소극적 집단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제자리 찾을 수 있리라 본다.

올바른 제도의 정착과 국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신있는 건축사의 소명을 바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대안으로 제시한다.